

YONHAP | 연합리페르
REPÈRE

- ➔ 목차
- ➔ 과월호
- ➔ 정기구독신청
- ➔ 사진구입



Special

Gimhae

글/양동근 기자·사진/김주형 기자

가야의 문화는 신어산이 올라다 보이는 낙동강 하류에서 꽃을 피웠다. 수로왕릉과 수로왕비릉, 고대가요의 배경이 됐던 '구지봉' 과 당시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봉황동 유적지' 와 '대성동 고분박물관' 등 옛 것들이 길해라는 이름의 도시 한가운데에 자리하고 있다. 현대의 분주함과 화려함이 도시를 감싸지만 고대의 유물과 유적들은 옛날의 영화를 품고 무거운 침묵 속에 잠겨 있다.



Contrast of Space

김해와 가야는 같은 공간에 자리하고 있지만 2000여년이라는 시간의 간극은 또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김해 도심의 거리를 거닐고, 관광지를 돌아보다 보면 고대와 현대가 교차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그곳에는 서로를 밀어내지 않으면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깃들여 있다.



Contrast of Space

날렵한 버선 모양의 기와지붕이 현대식 아파트촌의 김해와 묘한 대조를 이룬다. 과거는 현재를 내려다보고, 현대적인 것은 옛 것을 우러러본다. 자연스레 '온고지신(溫故知新)'이란 옛말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다. 넓은 평야 뒤로 멀리 낙동강의 줄기가 굽이치고 있다.



잊혀진 역사 가야의 흔적 찾기

김해는 한반도의 역사에서 거의 잊혀져버린 고도이다. 고구려, 신라, 백제와 어깨를 나란히 했던 금관가야는 이곳에서 520여 년간 찬란한 역사를 꽃피웠다. 그곳에 가면 신화와 전설이 되어버린 2000여 년 전의 존재들을 만날 수 있다. 언덕과 하천, 땅에 떨어진 조개껍데기 하나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곳이다.

김해에 대한 자유연상의 첫 번째 이미지는 부산의 항공 관문인 김해공항이었다. 경남 지역에서 항공편을 이용해 해외로 떠나거나 부산이라는 경남 최대의 도시로 진입하기 위해 거치는 공항이 있는 곳이라는 인상이 강했다. 두 번째는 ‘김해 김 씨’의 발상지라는 것이었다. 한국에서 800만 명이 상으로 가장 많다는 ‘김 씨’ 중에서도 김해 김 씨는 그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한국인 10명 중 1명이 김해 김 씨라는 해석이 가능할 것도 같다.

2000년 전 고대사와의 조우

이런 생각은 자연스럽게 김해 김 씨의 시조인 수로왕으로 이어졌다. 학창시절 잠깐이나마 접했던 수로왕에 관한 신화와 고대가요가 오래된 기억 한 편에서 어렵풋하게 떠올랐다. 백제와 신라의 사에서 강대국의 역사에 가려져 이제는 흔적만 남은 가야가 그곳에 잠들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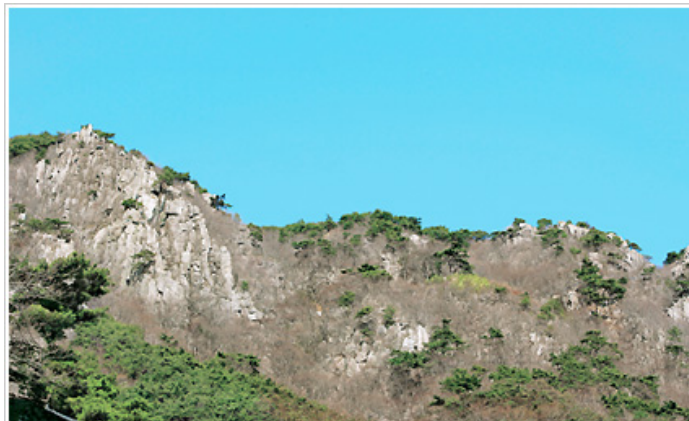
가야의 유적들은 김해 도심에 숨바꼭질하듯 산재해 있다. 도심의 작은 언덕이나 하천의 한 귀퉁이, 주택가 골목길 어귀 등 발길을 옮길 때마다 만나게 된다. 아무 것도 없을 것 같은 현대식 건물이나 발을 딛고 선 거리의 아래에도 고대의 역사가 숨 쉬고 있을지 모른다.

말을 내리는 곳인 하마비 뒤로 ‘송화문’이라 적힌 수로왕릉의 입구에 들어서자 신성한 지역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홍살문이 정면에 놓여 있다. 입구에서 왕릉에 이르는 길을 ‘신도’라고 부르는데 가운데는 높고 양쪽 길은 상대적으로 낮다. 왕릉은 2층 구조의 가락루(駕洛樓)의 오른쪽 문을 통해 이를 수 있다.

왼쪽에는 송신각(崇神閣)과 신도비가 있고, 왕릉 바로 앞에는 납릉정문이 있다. 납릉정문의 대들보 위쪽에는 ‘파사석탑’을 연상케 하는 흰색 석탑 양쪽으로 흰색 물고기가 마주보고 있는 ‘쌍어문’이 있다. 이 문양은 인도 야요디아 지방의 건축물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 수로왕비인 허황옥이 인도에서 건너왔다는 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봉긋한 초록 잔디밭이 솟아오른 것 같은 거대한 수로왕릉은 동물 석상들의 호위를 받으며 정적 속에 묻혀 있었다.

한때 번성했으면서도 기록되지 않아 잊혀져버린 가야의 역사는 그가 부활해야 제대로 우리들에게 전해질 것 같다.



신어산과 은하사 가벼운 발걸음으로 체험하는 산행의 진미

신어산(神魚山)은 누구나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산이다. 정상까지 그다지 멀지 않은 거리는 산행의 버거움을 잊게 하고, 바다를 향해 솟아오른 정상부의 기암괴석은 산행 내내 시시각각 다른 모습을 보이며 눈 맛을 더한다. 백두산처럼 거대하지도 않고, 지리산처럼 깊지 않아도 신어산은 산행의 진미를 모두 보여주고 있었다.

신어산(神魚山)이란 이름이 전하는 느낌이 특이했다. 드라마 주몽에 등장하는 ‘다물할’처럼 산 속에는 특별한 신물이라도 간직되어 있을 것만 같았다. 고대철기문화를 꽃피운 금관가야의 중심도시에 있는 산이기에 이름은 더욱 범상치 않게 여겨졌다. 김해 도심에서 북동쪽으로 난 도로를 따라 인제대학을 지나자 신어산으로 이어지는 길이 나타났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하얀색 구름이 푸르름을 수놓은 하늘 아래 날카로운 바위를 안고 있는 신어산이 손에 잡힐 듯 다가와 있었다.

소나무와 잡목들이 숲을 이룬 비탈진 도로를 조금 올라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산행을 시작했다. 돌길과 흙길이 반복되는 오솔길 양쪽으로는 가느다란 소나무들이 넘어질 듯 이리저리 아무렇게나 서 있다. 무성하진 않아도 한낮의 햇살을 어느 정도 가려주고 있다.





김해한옥체험관
조선시대 사대부의 호사를 체험하다

수로왕릉 왼쪽의 길 건너에는 조선시대 사대부의 고택을 재현한 김해한옥체험관이 있다. 한옥의 우아함과 기품을 한껏 살린 한옥체험관은 한 폭의 고급스러운 한국화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게 하는 공간이다. 허룻밤을 지내며 전통을 체험하고, 정성스럽게 마련한 한식도 맛볼 수 있다..

김해한옥체험관 현관이 걸린 솥을대문을 들어서자 조선시대 사대부의 가옥이 눈앞에 펼쳐진다. 빛깔 고운 고령기와를 얹어 세련미를 전하는 팔작지붕과 흙벽돌로 무늬를 수놓은 황토빛 담벼락이 적당히 어우러지며 고급스러운 느낌마저 들게 한다. 황토색 마당도 옛날의 향취를 더해 주는 듯하다.

흙담 안쪽에는 안채인 ‘거안당’과 사랑채인 ‘담경헌’, 식당인 ‘감지방’이 있다. 거안당의 넓은 대청마루가 시원스럽다. 방 안에는 조선시대 양반들이 사용하던 물품의 모사품이 놓여 있다. 경상과 연상 등 고가구와 보료, 방석, 편지꽃이, 병풍 등의 전통 실내장식이 LCD 모니터, 전화기 등 현대 물건과 묘한 조화를 이룬다. 대청마루에서 보는 마당 풍경이 평화롭다. 오죽과 이대의 검고 푸른 잎사귀가 밝은 햇살 아래 더욱 싱그러웠다.

담경헌은 누마루와 대청마루에 전통 등불 목침을 장식해 놓았다. 한옥체험관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탐미당은 특급호텔에 버금가는 편리한 시설이 눈에 띈다. 이곳의 모든 공간은 회의실이나 숙박 시설로 이용되고 있다. 이용 요금은 2인 객실이 8만~12만 원, 4인 객실은 10만~12만 원이다.

연못 옆의 ‘감지방’에서는 궁중음식을 맛볼 수 있다. 해산물 위주의 식단으로 코스요리에는 전채 요리와 구절판, 신선로, 오첩반상이 나오는 ‘가야 정찬’, 가야 정찬에 육회, 전유화, 수삼채, 송이구이를 더한 ‘허황후 만찬’, 허황후 만찬에 대하구이, 소라찜, 송이초밥, 궁중 우족탕 등 특별 메뉴가 제공되는 ‘수로왕 만찬’ 등이 있다. 인삼녹각우족탕, 갈비찜 반상 등의 정식메뉴와 모듬 생선회, 왕새우구이 등 일품 요리도 준비된다.

한편 한옥체험관에서는 다도시연, 예절교육, 한지공예, 민속공예, 풍물놀이 등의 전통문화 체험을 비롯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야 역사 탐방과 전통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캠프, 예절학당 등을 진행한다. 또 전통 혼례복장을 입어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문의 055-322-4735



Clayarch Gimhae Museum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은 독특하면서도 낯선 개념의 공간이다. 흙과 건축을 주제로 하는 세계 최초의 건축도자 전문 미술관으로 매년 2회씩 독특한 개념의 기획전을 열고 있다. 김해를 방문해 특별한 공간을 여행하고 싶다면 꼭 둘러봐야 할 곳이다.

가볼 만한 곳

국립김해박물관 선사시대에서부터 변한, 전기 가야를 대표하는 금관가야 등의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각종 유물을 전시해놓았다. 상설전시실에는 빗살무늬 토기, 돌도끼, 신선로 모양 토기, 오리 모양 토기 등 신석기, 변한, 청동기 시대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으며, 금관가야의 그릇받침과 고사리 문양이 뚜렷한 철갑옷과 새장식미늘쇠, 대가야의 봉황무늬 고리자루칼 등이 있다. 지난해 12월 개관한 가야누리 1층의 가야문화체험실은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이다. 6가야를 상징하는 6개의 황금알 모양 의자와 가야 시대의 가옥이 있고, 가야와 삼국의 건국 신화에 관한 설명을 볼 수 있다. 유물 탁본 및 발굴 체험, 풀무질 체험 등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가야문화체험실은 사전에 예약 (055-320-6880)해야 하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탁본용지와 지점토는 별도 구입해야 한다. 개관 시간 오전 9시~오후 6시(3~11월, 토요일은 오후 9시까지, 1월 1일 및 매주 월요일 휴관) 관람요금 어른 1000원, 어린이 및 청소년 500원 문의 055-325-9332 김해민속박물관 김해 지역의 민속유물을 소개하는 곳으로 농사용구, 놀이용구, 제례용구, 대장간용구 등 민속자료 778점이 전시되어 있다. 역사 속 민속을 고찰하는 ‘민속과의 만남’, 그래픽을 통해 민속과 농경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민속이해의 장’, 민속·농경유물을 전시하는 ‘민속생활관’, 안방과 사랑방 등 민속생활을 엿볼 수 있는 ‘생활재현관’ 등의 테마전시공간으로 나뉘어 있다. 수령원 안에 있으며 무료로 개방된다.

김해천문대 영남 지역 유일의 시민천문대로 가락국의 시조인 김수로 왕이 알에서 태어난 것을 상징하는 형태로 건축됐다. 분성산 정상에 위치해 있어 별을 관측하고, 김해의 야경을 즐기기에 좋다. 밤하늘의 별을 관측할 수 있는 관측동과 계절별 별자리 영상을 볼 수 있는 천체투영실이 있다. 개방시간 오후 2시~10시(입장은 9시까지, 1월 1일 및 매주 월요일 휴관) 입장료 어른 3000원, 청소년 2000원, 어린이 1500원, 유아(5~7세) 1000원 문의 055-337-3785

연지공원 가야유적지 북쪽 끝에 위치해 있는 연지공원은 호수 둘레를 거닐며 산책하기 좋은 공간이다. 호수연꽃과 어리연이 심어져 있고, 꽃상자를 띄워 계절에 따라 다양한 경관을 연출한다.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조각품이 호수 주변에 세워져 있으며, 특히 저녁 8시부터 40분 동안 음악에 맞춰 화려한 조명이 빛을 발하는 음악 분수의 공연이 흥미롭다.

분산성 낙동강 하류의 넓은 평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으로 산 정상에 돌로 쌓은 둘레 약 900m의 산성이다. 고려 우왕 3년에 왜구를 막기 위해 축성한 뒤 조선 고종 8년에 개축했다. 최초 축성연대는 가야시대로 외적의 침입 시 피난했던 성으로 추정되고 있다. 남쪽과 북쪽에 문지 2개와 우물지 등이 남아 있으며, 봉수대가 복원되어 있다.

동림사 가락국 초기에 수로왕비의 오빠인 장유화상이 가락국의 안전과 번영을 염원하며 창건한 사찰로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최근에 복원했다. 은하사 오른쪽으로 신어산이 병풍처럼 뒤를 두르고 있다.

무척산 김해 생림면과 상동면 경계에 우뚝 솟은 산으로 전체적으로 완만한 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북서사면에는 예사롭지 않은 바위봉들이 즐비해 산행을 즐기기에 좋다. 높이는 해발 702m이다.

김해 스케이트파크 스케이트보드, BMX(자전거묘기) 등 익스트림스포츠(X-게임)를 즐길 수 있는 시설로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난이도의 기물이 설치되어 있다. 트랙은 폭 4m, 총 길이 200m이며, BMX 레이스 코스는 총 연장 350m, 5코스, 12레인의 국제 규격이다. 라이더를 위한 버트와 스트릿파크도 마련돼 있다.

장유암 김수로왕과 허왕후가 혼례를 치르고 신혼밀월을 보낸 장소에 세워진 암자이다. 원래 이름은 왕후사였으나 장유화상을 기려 장유암으로 재건됐다.

노무현 대통령 생가 김해 도심 북서쪽의 진영읍 분산리 봉화마을은 노무현 대통령 생가가 있는 곳이다. 노 대통령이 태어나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생활한 곳으로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시골가옥이다. 생가를 안내하는 방향 표지판을 따라가면 되며, 생가 앞에는 관련 안내판이 있다. 현재 이곳에는 마을 주민이 생활하고 있다.

축제

가락문화축제 지난해까지 가락문화제(음력 3월)와 가야세계문화축전(음력 9월)으로 열렸던 두 개의 축제를 하나로 묶어 개최한다. 가야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공연과 전시, 각종 행사가 가야시대 대표적 유적지인 대성동 수릉원과 대성동 고분군 일대에서 열릴 예정이다. 기간 4월 30일~5월 6일

김해분청도자기축제 김해는 국내 최대의 분청사기 도예촌으로 약 2000년 전 가야시대의 맥을 이어 조선시대에는 생활사기의 본고장이 되었다. 매년 10월 말에 분청도자기 관련 축제를 열고 있다. 생활도자기 전시판매, 분청도자기 명품전 등 전시행사가 마련되며, 각종 체험 및 공연행사가 열린다.

진영단감축제 단감의 명산지를 알리고, 홍보와 판로 개척을 위해 마련하는 행사로 매년 11월 초에 개최된다.

관광문의

관광안내소 055-338-1330 김해시 관광과 055-330-3241
수로왕릉 055-332-1094 수로왕비릉 055-330-3948
은하사 055-337-0103 대성동 고분박물관 055-331-2357

교통 안내

경부고속도로-대전J.C-대전통영간고속도로-진주J.C-남해안고속도로-동김해I.C

